

<동정자료>

박선호 차관, “기술혁신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이 갈 길” 강조 29일 ‘2019 토목의 날’ 행사 참석하여 동탑산업훈장 등 유공표창

-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29일(금) 14:00시 대한토목학회에서 주최한 “2019 토목의 날” 행사에 참석하여 토목기술 발전 유공자 22명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장을 수여했다
- 박 차관은 이날 치사를 통해 “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”하다면서,
 - “광역교통망 확충과 도로·철도·공항 등 핵심 기반시설(인프라)을 조기에 완성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- 특히, 스마트시티, 수소 시범도시와 같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러한 목표 성과 달성을 위해 토목기술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
- 이날 행사에는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등 내·외빈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
- 기념행사에 이어 진행된 건설정책포럼에서 「국가인프라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체감 실태」를 주제로 정부, 학계, 업계 등 전문가들이 참가해 다양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

2019. 3. 29.

국토교통부 대변인